

2015 4. 26 부활 제 4 주일

제 1 독서 : 사도행전 4,8-12 <예수님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제 2 독서 : 요 한 1 3,1-2 <우리는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복 음 : 요 한 10,11-18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요즘 한국에서 재미있는것이, EBS 방송을 보면 인문학 강의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이 물질적인 것만 찾아 살다 보니까, 이제서야 노자, 장자, 스피노자, 파스칼 등 동서양의 철학자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소 주일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 하였습니까? 혹시 좋은 학교, 좋은직업을 갖도록 하는데만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는지? 우리들은 하느님의 자녀이고, 신앙인들 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인들이 우리자녀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 입니까? 무엇이 되라고 하셨 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신부가 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제자신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어려서 부터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 다. 남에게 해가 되지 않으려 노력하다보니 한편으로는 완벽주의자 로 성격이 형성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도, 사소한 것으로 대충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의 친구나 이웃이 거북해 할때는, 그것이 너무 미안하고 자책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계속 하느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다시 일어하는 힘을 얻습 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청하라!** 고 하십니다. 내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청하라!** 고 하십니다. **오늘 성소주일을 맞아 우리가 하느님께 성소를 청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좋은 목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요한 복음 말씀을 통해서

“ 나는 착한 목자다 ! ”

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목자는 무엇이나하면 바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목자가 좋은 목자라고 하십니다. 한국에서는 목자라는 말을, 개신교에서는 쓰지만 천주교에서는 쓰지를 않습니다. 신부, 본당신부, 주임신부, 보좌신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개신교 영향을 받아서 PASTER 라는 말을 씁니다. 로마에서 이곳에 처음 왔을때에는 PASTER 라는 말이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것이 각 본당에 신부님이 여러분이 계시지만 PASTER 는 한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보좌신부는 성당지붕에 비가 새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수도물이 나오건 안 나오건, 전기가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보좌신부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당의 전례가 제대로 되건 안되건 보좌신부는 신경 을 쓰지 않습니다. 본당신부인 PASTER, 목자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좌신부는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본당신부는 미움을 많이 받아요. 우리 공동체에도 일년에 두번이상 외부에서 신부님들을 모십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들이 다녀 가시면 우리형제 자매님들의 얼굴이 아주 밝아지십니다. 왜냐? 칭찬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본당신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당신부는 신자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지적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목자로서 당연히 해야만하는 의무이기 때문이며, 또한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1 독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날 때부터 앓은뱅이 병에 걸린 사람이 성전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적어도 삼십년이상을 그 성전앞에서 구걸을 한것입니다. 그동네의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앓은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때부터 앓은뱅이인 그 사람이 베드로사도와 요한사도들이 그 성전을 방문할 때에 손을 내밉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하는말이 그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말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베드로가 바로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세번씩이나 그분을 부정했던 그가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명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일생에 신앙체험을 안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크거나 작거나 신앙체험을 대개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베드로의 용기가 없어요. 이웃들에게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그 말을 자신있게 하실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그 말씀을,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분들은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교를, 이웃을 예수님께 이끌수 있다는 것 입니다. 재미 있는 것은 개신교신자들은 전교에 열심입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예수님을 매주 모시면서도, 그 분에대해 이웃들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내 신앙자세를, 내 마음의 자세를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 1 서에서 요한사도는

“ 사랑하는 여러분, 1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내가 그 하느님의 자녀로서 잘 살수는 없지만 내 온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것, 노력한다는 것은 내것을 다하고 나서 남은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에, 가정에 모든 일을 다하고 난 다음에 여력이 생기면, 하느님을 찾겠다! 성당을 다니겠다!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겨우 서게 되면 바로 그것으로구나!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옳았구나! 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아버지께서는 그 착한 목자를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요구 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목자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미사중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 1 독서

<예수님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4,8-12

그 무렵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8(117),1 과 8-9.21-23.26 과 28-29(◎ 22)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

○ 당신이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제 2 독서

<우리는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뵈게 될 것입니다.>

요한 1 서의 말씀입니다. 3,1-2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0,1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알렐루야.

복음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11-18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삯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몰어 가고 양 떼를 흩어 버린다.
그는 삯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